

한·일·대만 전문가들

통도사 다보탑 벽화 복원 나섰다



복원에 앞서 3개국 전문가들이 영산전 벽화를 분석하는 장면.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지은 영산전의 다보탑 벽화 보존과 모사작업에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문화재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의 통도사성보박물관과 일본 나라시 강고지문화재연구소, 대만 통하이대학의 전문가 25명이 공동 연구에 참여한다. 우리나라 벽화 보존을 위해 3개국이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인데다, 일본과 한국의 민간 기업이 공동 연구를 지원하고 나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일본의 도요타재단과 한국의 부산상호저축은행(대표 김영), 부산2상호저축은행(김

민영)이 후원을 맡았다. 특히 부산2상호저축은행의 김민영 대표는 불교 고문서 수집과 스님들의 계보 정리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불림이 깊은 불자이기도 하다.

이번 공동 연구는 일본 나라시 강고지 문화재연구소 아야오치 실장이 통도사를 방문했다가 영산전의 다보탑 벽화에 매료되면서 시작했다. 채색자료수복실 실장인 아야오치씨는 박력이 진행되고 있는 다보탑의 아름다움을 원형 그대로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도요타 재단에 지원 기금을

방법을 찾는 일과 함께 이번 작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다보탑 벽화의 복원을 위한 모사 작업이다.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올 11월부터 시작하는 모사 작업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채색 상태나 박락 상태 등을 그대로 모사하는 현상 모사를 일본은 처음 그려진 그대로를 집적하며 복원해 내는 복원 모사를 맡는다. 이 두 가지 모사본이 완성되면 전시를 한 후 통도사에 영구히 보존하게 된다.

또한 이번 공동 연구 성과를 토대로 12월 3일 일본에서 한일 공동 세미나를 개최

한·일 민간기업이 후원, 내년말 완성 공동세미나 개최... 첨단 장비도 동원

신청했다. 이들 통도사가 받아들였고 통도사성보박물관장 범하 스님은 한국의 민간 기업의 지원을 이끌어냈다.

공동 연구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3년.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공동 연구가 착각 진행 중이다. 한국, 일본, 대만의 전문가들이 매일 한차례씩 영산전 주변의 일기, 습도, 온도 등을 관찰해 그 조건에 맞는 보존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벽화가 그려진 벽의 구조물과 벽화의 상태 분석을 위해 X선 촬영과 적외선 촬영 등 첨단 장비가 동원됐다.

다보탑 벽화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벽화 제작 당시 사용되었던 아교를 복원해 벽화가 떨어지지 나오지 않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최할 예정이며 2007년 11월에는 한국에서 세미나를 열어 그 동안의 결과물을 발표하게 된다.

법화경의 '견보탑품'에 나오는 다보탑을 형상화한 것은 불교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이 건축으로 남아 있을 뿐, 회화작품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이번 공동 연구로 다보탑 벽화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석가여래와 다보여래가 분반좌하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 벽화는 1716년(숙종 42년) 작품으로 파악됐다. 탑 둘레는 운동영락과 보배로 된 풍경이 장엄돼 있고 하늘에는 오색구름이 휘날려 아름다움을 더하는 작품이다. 통도사 영산전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03호 지정돼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청정한 마음으로 평화 정착시켜야”

부산종교인 평화회의, 영호남 종교지도자대회 열어

부산종교인 평화회의(상임대표 정각)는 10월 16~17일 부산 코모도호텔과 부산일원에서 제 7회 2006 영호남 종교지도자 대회를 개최하고 16일 첫 행사로 한반도 평화 구현과 종교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 정홍선 신라대 총장의 사회로 법산 스님(前 신라대 총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김동환(전도교), 법현 스님(불교) 송영웅 목사(기독교)가 토론자로 나

섰다.

법산 스님은 주제 발표에서 “북한의 핵 실험으로 한반도가 떠들썩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종교인들은 이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시대적 상황을 대중요법으로 치유하려하기보다는 종교본래적 사명에 전념하면서 청정한 마음으로 화합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평화를 정착시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사명대사 추모대법회 봉행

부산불교연합회는 사명대사 열반 제 396주기를 맞아 10월 17일 초을 어린이대공원 사명대사 동상 앞에서 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대상 스님은 봉행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해 세계가 서로를 반목하는 지금 사명 큰스님의 호국정신과 대자비심이 어느 때 보다 간절하다”고 말했다.

부산불교연합회 부회장 혜종 스님의 행장소개로 시작된 이날 법회는 헌화, 기원문, 봉행사, 추모사 낭독, 사명대사 추모가 합창 순으로 봉행됐다.

이은아 기자

기장 금산사 가을산사음악회



부산 기장군 자비동산 금산사주지 무유는 10월 15일 금산사 경내 야외무대에서 소년, 소녀 가정 돌기 가을산사 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남성중창단 청공의 ‘칸초네 칸초네’ 중창으로 시작된 이날 음악회는 혜원장사 합창단, 흥법사 청림 어린이 중창단, 한마음 선원 합창단의 공연으로 이어졌으며 어울림 국악연구회의 ‘평조회상’ 중 ‘상영상’ 공연으로 회향됐다.

금산사 산사 음악회의 수익금은 사회복지법인 혜원을 통해 소년, 소녀 가정을 돕는데 쓰여질 예정이다. 이은아 기자

생명나눔 부산본부 개소식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10월 17일 양정 불교회관 5층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헌관식을 봉행했다(사진).

부산지역 본부장 원범 스님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사무실을 열었다”며 “사랑과 관심이 힘 있어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7월 21일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열린 범이사 개산문예대제전에 참가 장기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헌관식에는 범이사 주지 대상 스님, 감로사 주지 혜종 스님, 김귀련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은아 기자

울산 월봉사, 선서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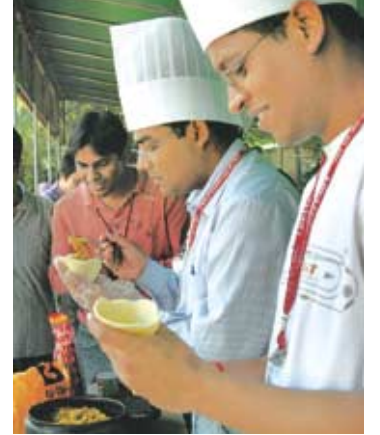
울산 월봉사주지 오심는 10월 14일 ‘소외된 노인복지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 주제로 제2회 월봉사 문화 예술 축제를 열었다.

선서화전 및 바자회, 일일차집으로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축제는 입재불공, 티벳 칠링린포제 초청 문화의식, 통도사 주지 산옹 스님의 법문으로 이어졌다. 오후에는 사찰음식시연회, 월봉사 다도회의 전통다례 시범 등으로 월봉사를 찾은 5천여 사부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천미희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음식 나누며 불교와 친구 돼요

부산 흥법사 외국인 문화행사



자기나라 음식을 만들고 있는 외국인들.

“빨리!! 빨리!!”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초조해진 나탈리의 목소리가 깔릴 소리, 기름 끓는 소리와 함께 텀포 빠른 음악처럼 리드미컬하게 들린다.

캐나다에서 온 나탈리, 인도의 나라지 사르마, 일본의 와타나베 히로코씨 등 10월 15일 부산 흥법사 야외 조리실에 모인 20명의 외국인들이 저마다 각국을 대표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다.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외국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사)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이 외국인 문화행사 개최 100회를 맞아 국가별 채식 요리 선보이기를 연 것이다.

치어-지글지글~ 지지고, 볶고, 끓이고... 국적도 다양하고 조리법은 각각각색이지만 모자란 재료는 나누고 미처 배우지 못한 조리기구 작동법을 알려주는 모습은 각국의 음식이 뿜어내는 연기가 한데 섞여 풍기는 냄새처럼 묘

친구들과 함께 왔다는 영국의 피터 루이스는 “미리 알았다면 꼭 참가해 요리를 만들고 싶었다”며 “한국에 와서 늘 한국음식만 먹었는데 오늘은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 볼 수 있어 아주 좋은 날”이라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공손히 무릎 꿇고 연차와 떡을 맛 본 후주의 아네트 드류는 “맛있어요. 굿~ 좋아요.”라며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다.

100회 맞아 각국 사찰 채식요리 선보여

10년간 3000여명 참가, ‘흥보대사’ 역할

한 일체감을 느끼게 했다.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거나 각국의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교사들이다. 부산 동서대학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공하고 있는 인도의 나라지 사르마는 군만두처럼 생긴 사모사를 가리키며 “이거 인도 만두,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찐따 만들어서 사람들이랑 같이 먹고 싶어요”라며 짧은 한국어를 구사하고는 멋쩍은 웃음을 내 보였다.

정호를 조금 넘긴 시간, 흥법사 잔디밭에 설치된 식탁 위로 각국의 음식이 속속 올라오기 시작했다.

인도의 사모사와 전통차 짜이 일본의 사찰음식 권전지무, 폴란드식 만두 프르기, 대만의 버섯 사부사부, 한국의 사찰음식 등 7개국 참가자들의 20여 가지 음식이 식탁을 가득 채우고 요리를 하던 참가자와 기다리던 관람객까지 모두가 식탁으로 모여 들었다.

1996년 몽골 단산사 방문을 계기로 국제포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몽골선수단과 결연을 맺으며 한국의 역사와 불교문화를 몽골에 소개하기 시작했다.

외국인문화행사는 10년간 100회의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3000명의 참가자들이 다녀갔다. 국제부 김건웅 회장은 “앞으로도 웃음이, 송편 빚기 등 계절에 맞는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과 불교를 알리는 통로가 되겠다”며 새로운 10년을 다짐했다.

이은아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 부산지사 : (051)632-0064
-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 경남남부지사 : (011)571-5316
- 울산지사 : (052)272-0909

www.songgwangsa.org

송광사 금강산림대법회

[입재 : 2006년 11월 8일 (음 9월 18일) 11시 보성 큰스님]
[회향 : 2006년 12월 27일 (음 11월 8일) 11시 지관 큰스님]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제방에서 수행정진하시는 큰스님들을 모시고 ‘금강산림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에 봉행되는 ‘금강산림대법회’ 49일동안 매일 영가천도기도를 봉행하며, 일주일에 한번씩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초청법문이 펼쳐집니다.

대법회에 동참한 인연공덕으로 우리 재가불자들은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깨달음의 향훈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유주무주 선망부모의 영가들에게는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영조 합창

동참금 : 영가 1위당 1만원, 가족축원 5만원입니다

차량순회

- 광주 출발 : 학동 나협회 앞 9:00 출발
- 부산 출발 : 교대역 한양프라자 앞 5:30 출발
- 울산 출발 : 태화로터리 5:30 출발
- 순천 출발 : 대송사 앞 9:00 출발
- 양산 출발 : 천일고속정류장 6:00 출발
- 경남지역 차량 운행 연락처 : 범일 010-6626-5030 / 수보리 010-9595-8262



11월 8일(음9월 18일) 보성큰스님 송광사 방장



11월 15일(음9월 25일) 정여스님 여여선전 선원장



11월 22일(음10월 2일) 범종스님 송광사 회주



11월 29일(음10월 9일) 혜자스님 도선사 주지



12월 6일(음10월 16일) 월파스님 문수암 주지



12월 13일(음10월 23일) 동광스님 월봉사 주지



12월 19일(음10월 29일) 지현스님 부산 관음사 주지



12월 27일(음11월 8일) 지관큰스님 총무원장

승보총람 조계총림

송 광 사

061)755-0108 중무소 061)755-5301 원주실